

인천지부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취재 : 권상혁 기자



본회 인천지부(지부장 : 정진섭)는 지난 1월 10일 정오 인천시 갤럭시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본회 이명복 부회장 및 노영한 전무, 정진섭 지부장, 경기도내 각 지부장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정진섭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4년 오일쇼크 당시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선배양돈가들께서 사재까지 털어 지부를 설립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UR타결로 인해 양돈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생산비 절감과 기술개발로 무한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명복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부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인천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국제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조금제도의

입법화에 인천지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진섭 지부장은 지부발전에 공이 큰 유일상 씨외 3명에게 20주년 기념패를, (주)대신산업 국병록 이사의 1명에게 감사패를, 정광윤 감사외 1명에게 공로패를, 장무성 전무외 1명에게 10년 근속상을 각각 수여했다.

또한 정 지부장은 축산진흥과 양돈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노력한 본회 전동용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전동용 회장도 정진섭 지부장에게 그동안 양돈경영안정 및 양돈인의 권익신장, 협회조직활성화에 노력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여했다.

인천지부는 지난 '74년 1월 10일 22명의 회원들이 창립총회를 개최, 인천시 양돈협회를 설립했다.

'79년 2월 17일 (사)대한양돈협회 중앙회에 가입했으며 '80년에는 34명의 회원이 2천만원의 자산으로 새마을금고 금융업무를 시작했다.

'90년 5월 15일에는 새마을금고 자산 보유 10억원을 달성했고 5월 21일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사옥을 마련했다.

인천지부는 월 6천두의 돼지계통출하사업을 벌이는 한편 월 1천3백톤의 배합사료를 공동구매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 여수신사업과 회원들의 돼지출하 편의를 돕기 위해 차량운행 지원 및 회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